

# 반부패기관 장악 시도 부메랑... 젤렌스키 리더십 '위기'

### 검찰 권한 확대에 "반부패 역행" 국내외 거센 반발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 전국으로 확산 EU·G7 "법치주의 훼손"... IMF 지원 요청도 난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부패 기관 장악력을 늘리려다 국내외 반발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23일(현지 시간) 이틀째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최대 후원자인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EU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전날 젤렌스키는 검찰총장이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기소 전담인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에 더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내무부 소속 안보 당국이 NABU를 약 70차례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직원 1명을 러시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상태였다.

젤렌스키 정부는 전시에 안보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정부 고위급의 부패 혐의에 적극적 수사를 막기 위해 고삐를 죄는 것으로 의심한다. NABU와 SAPO란 천리 야누코비치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발해 일어난 유로마이단 이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 압박으로 만들어진 반부패 기관이었기에 상징성이 크다. 부패 척결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담은 곳이지만 우크라이나 반부패 지수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180개국 중 105위). 소련 해체와 독립 당시 혼란 속에 생겨난 과두 재벌(올리가르히)을 제어하지 못한 후과로서 저주 지직된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의 23일자 성명에선 러시아가 이번 사태의 여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주재 주요 7개국(G7) 대사들이 21일 NABU 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EU는 반부패 기관 감독 법안의 의회 통과 전후로 거듭 경고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3일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에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U 대변인은 "법치주의 존중과 부패와의 싸움이 EU의 핵심 요소"라며 "가입 후보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기준 충족을 기대한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가 법치주의 유지와 반부패 노력을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EU 가입과 더불어 국제 공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의 신임 총리 올리아 스페리리코가 인터뷰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재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전쟁 중의 효율성을 위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립적 반부패 기관들에 대한 검찰 장악력을 늘리려다 거센 국내외 반발에 직면했다. 젤렌스키를 등장시킨 유로마이단 시위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불리한 조건이 늘어난 셈이다. '법치주의'는 EU-IMF 등 국제적 기구에서 자금 제공을 위해 심사할 때의 기본 기준이다.

이에 젤렌스키는 23일 이번 사태의 핵심인 NABU·SAPO-검찰청·보안국(SBU)-국가수사국(SBI)-내무부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청취한 후 엑스(X=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사회가 국가 기관에

원하는 바를 보여 정의와 각 기관 기능을 보장" "2주 안에 공동행동계획이 마련될 것"을 약속한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강화" "기존 문제를 해결해 더 큰 정의 구현" "사회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할 조치를 담을 것"을 강조했으며, 저녁 연설에선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구체적 내용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론이 수그러

지지 미지수다. 반부패 기관 단속으로 이번 사태가 확산한 건, 그동안 전시 혼란기를 틈 타 정권의 권력 집중 속에서 유로마이단 이후 국민이 10년 넘게 바라온 고위층 부정부패 근절이 이뤄지지 않아 분노가 쌓여 온 측면도 크다. NABU와 SAPO는 젤렌스키 떠날 이후 내 입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며 "의회가 없앤 (독립성) 보장을 복구하려면 모호한 부분 없는 입법적 조치가 필

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 벌어진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다" "부패는 죽음" 등이 적힌 팻말들을 볼 수 있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에서 수천 명이 반부패 기관 감독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갔으며 르비우-하르키우-오데사 등지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시위엔 10~20대 청년층도 다수 참여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시위 참가자가 점점 늘어 전날의 약 3배인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유로마이단 이후 최대 규모임을 짚었다.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쓴 문구와 젤렌스키가 머리에 뿔을 단 채 귀를 막은 모습 그림이 결집어진 팻말도 눈길을 끌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선 러시아와 전투 중인 장병들 또한 이번 사태에 분노와 허탈감을 표시한다고 보도했다. '설계자'라는 폴사인의 한 23세 드론 조종사의 경우 "현 정부가 2019년(집권) 이후 진짜 얼굴을 이번엔 드러낸 것 같다"며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집중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전쟁 중에 정부를 감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풀이된다. 국가방위군 지휘관인 페트로 쿠지크는 이번 일을 "당국의 치명적 실수"라면서 "정부 고위급이 얽힌 다수의 부패 스캔들이 있다. 국민에게서 훔친 자산을 합법화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임명진 기자 imms@skyedaily.com

## 바이든, 회고록 판권 137억 원에 팔렸다

### 오바마·클린턴 보다 낮은 금액에 관심 집중 바이든 "직접 집필... 4년 임기 집중 회고 예정"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 판권이 약 1000만 달러(약 137억 원)에 팔렸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회고록의 전 세계 판권은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아서트 북그룹이 가져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행사에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대통령으로 지낸 4년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권 대금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 출판사 펄컨랜덤하우스는 2017년 Barack Obama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 판권을 6000만 달러(약 82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출판사인 알프레드 A. 크노프에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나의 삶'(My Life) 판권을 1500만 달러(약 205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첫 임기 이후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채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이후 4년을 분주하게 보낸 결과 백악관 복귀를 실현한 상태다.

트럼프가 2029년 1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의 회고록 또한 대단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비즈니스 전략 및 저널리스트인 요세프 가렛

의 기술(1987)은 이미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출간 당시 13주 연속 뉴욕타임스(NYT) 1위, 총 48주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다. 2021년 나온 '우리가 함께한 여정'(Our Journey Together)은 트럼프 스스로 사진과 캡션을 편집한 포토 에세이로 첫 24시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바이든의 회고록 출간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월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WSJ에선 원고 완성 일정과 책 홍보 계획이 그의 건강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은 뇌암으로 사망한 장남 보와와 가슴 아픈 추억을

풀어낸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를 2017년 출간한 바 있다. 상당한 인기를 끈 이 책이 2020년 대선 출마의 디딤돌이었다고 평가된다. 바이든의 불운한 가족사가 대중적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1973년 상원에 첫 당선된 그는 교통사고로 첫 부인과 어린 딸을 잃은 충격으로 사회를 고민했을 정도였다. 생존한 두 아들 중 아버지의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기대를 모았던 장남의 병사도 또한 번 충격을 준 가운데 차남 헨터에선 스캔들이 따라다녔다.

바이든은 1973년 이래 36년간 연방 상원 의원(델라웨어주)을 역임했고 2009~2017년 오바마 행정부 8년간 부통령을 지냈다.

부통령으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듯했으나 4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재기에 성공,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고 정치 인생 최정점에 올랐다. 작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트럼프와의 대선 첫 TV토론을 망친 이후 불거진 인지능력 논란에 떠밀려 후보 사퇴했다. 그 과정에서 말도 많았다. 민주당 승리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긴 했으나 바이든 부부엔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됐을 것으로 회자된다. 두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대선 트럼프를 찍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나왔을 정도다.

임명진 기자 imms@skyedaily.com



2024년 6월 27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첫 TV토론에서 공화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아스팔트에서 산화한 열사 김시립표 월약산 도라지즙

**60봉지 1상자 70,000원**

**4개 묶음 배송 무료배송**

**다음에 배송시 각 4천원씩 택배비 추가**

**김시립 목사님 사모-남경우**

**농협계좌 356-1421-4451-03**

**입금후 문자☎010-2387-9937**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 65세 완성)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으로 구급용 연해본 편찬 중 선조의 사망에 대한 죄를 물어 귀양살이와 복귀함을 반복하며 1610년(광해군 2) 25권 완성 ▶ 동의보감 길경(桔梗)-청폐거담(淸肺祛痰) 맑은 폐 가래제거(熱邪 祛) 기촉(氣促 호흡이 가쁜 것) 폐열(肺熱 폐질환) 면적(面赤-충열) 해수(咳嗽-가래) 비건(鼻乾-코 마름) 비늑(鼻-코피) 흉통(胸痛-가슴통증) 천축(喘促-기침하고 숨이 가쁨) 객혈(咯血-기침에 피를 토함)**